

#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셰필드 대학교
파견기간	18.09.19. ~ 19.02.01.
프로그램	학기제

## 1. 출국 전 준비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유학생 보험은 학교에서 소개해주었던 회사에 신청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교환학생 기간동안 특별히 아팠던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만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비자 심사는 필요하지 않았고 공항에서 입학 허가서와 공항레터를 보여주자 문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공권 같은 경우는 개인 발권이었고 저는 '스카이스캐너'라는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찾고 발권하였습니다. 저는 인천-런던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으며 89만원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 9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고 2월에 끝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여름, 가을, 겨울 옷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영국에서 9월은 한국만큼 덥지 않다고 들었기 때문에 가을, 겨울 옷만 챙겨갔습니다. 저는 고추장과 같은 식재료는 따로 챙겨가지 않았지만 챙겨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전기장판과 옷가지와 스킨로션 외에는 특별히 챙겨간 짐은 없습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 영국의 경우 언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영어를 사용합니다. 워낙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문화는 셰필드 지역 특성상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쉬웠습니다. 물가의 경우 식재료들은 싸편이지만 외식 물가는 정말 비싼 편입니다. 항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었고 종종 음식을 사서 먹어야 했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비싼 편이었습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 다른 대학들의 선택지가 있었지만 셰필드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영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유럽에서 생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며 영국은 영어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영어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 나-2. 공항 - 학교

- 공항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깝지도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셰필드 시내에 공항은 없으나 바로 옆 도시인 맨체스터에 공항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면 공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 저는 학기제 프로그램으로 갔기 때문에 수강신청을 할 필요는 없었고 미리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었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수업의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상냥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있었던 스쿨 트립이 정말 좋았습니다.

####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 기숙사 시설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개인 방과 화장실이 있었고 공동 주방을 이용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개인 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 수업이 3시 15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하루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도 남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셰필드 대학교에는 한국어학과가 있어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고 매주 월요일이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펍이 있어서 그곳에서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나면 기숙사에 친구를 초대해서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친구들이 우리를 자신들의 파티에 초대해서 친목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 음식은 만들어 먹는 것이 싸기 때문에 만들어 먹는다면 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외식 물가는 비싸지만 마트에 파는 과자 등은 싼 편이기 때문에 과자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마트에서 간식거리를 사 먹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은 주로 트램을 이용합니다. 트램을 자주 이용한다면 주간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 주말이나 학기 중간에 있는 방학을 이용해서 유럽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기간 중 영국 내에서는 에든버러, 런던, 버밍엄, 세븐시스터즈 등을 여행했으며 영국 외 지역으로는 아이슬란드, 스페인 바르셀로나 및 남부, 파리, 이탈리아, 독일을 여행했습니다. 셰필드 근교에 맨체스터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슬란드 여행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아이슬란드 왕복권을 구매하는 것은 가격도 비싸고 직항도 없는 등 매우 가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빙하와 자연의 경치가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 만약에 셰필드 대학교에 가게 된다면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친구를 적극적으로 사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셰필드 대학교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말 쉬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면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기를 추천합니다. 주말마다 여행을 가는 친구도 보았는데 나중에 교환학생이 끝났을 때 정말 많이 부러웠습니다.

####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